

광주체고 사격, 한국 주니어신기록 썼다



광주체고 사격선수들이 한국 사격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체고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남고 공기소총단체전에서 한국 주니어신기록을 수립했다.

최대한(2년)은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올랐다.

광주체고 김정현·오준서(이상 3년)·최대한·황의혁(1년)은 지난 9일 포항실내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 공기소총 단체전 본선에서 1876.4점을 쏘면서 대전체고(1,861.3점), 인천체고(1,859.9점)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의 점수는 한국주니어신기록이다.

공기소총 개인전에서는 최대한이 금메달을, 황

전국체전 공기소총 단체전 우승
최대한 개인전 대회신기록 '2관왕'
광주체고 김선자 여고부 금 명중

의혁이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최대한은 결선에서 249.3점을 기록해 대회신기록으로 우승, 황의혁은 247.6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격 여고부 선수들도 금은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체고 김선자(2년)는 여고 공기소총 개인전 결선에서 250.1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선자는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광주체고 김현(3년)과 김소현(2년), 전남여고 김보경(3년)과 호흡을 맞춰 은메달(1872.6점)을 추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체전에서 한국 주니어신기록을 수립한 광주체고 사격 오준서(왼쪽부터)·김정현·최대한·황의혁.

(광주시체육회 제공)



여고 공기소총 개인전 우승 광주체고 김선자

서석고 검도 전국 평정...단체전 우승



전국체전 검도단체전에서 우승한 서석고 검도선수와 광주시검도회 관계자들. 앞줄 왼쪽부터 송태준(1)·김영운(3)·안태준(3)·임우찬(1)·조도현(3)·정우진(3)·임지성(2)·이종환(2)·김민수(1)·이인호(1)·김도엽(2), 뒷줄 맨 왼쪽 임지문(3년).

14년 만에 전국체전 왕좌 복귀

검도명문 서석고등학교가 14년만에 전국체전 왕좌에 복귀했다.

서석고등학교 검도부가 10일 경북 구미시 형곡동 장안체육관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전 검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석고는 8강전에서 전남도를 3-1로 꺾고 4강에 진출해 인천선발을 4-2로 눌렀다.

결승에서도 경북선발을 3-2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서석고는 이로써 지난 2007년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우승한 이래 14년만에

전국체전에서 정상을 밟았고 올시즌 단체전 2관왕에 올랐다.

서석고는 지난 5월 경남 창원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검도 회장기 전국 중·고검도대회 고등부 통합단체전 결승에서 해룡고(전남)를 5-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표 배찬진 전국체전 바둑 제패



전국체전 전남 바둑대표 배찬진(가운데)과 김재무(왼쪽) 전남도체육회장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배찬진(전남 대표)이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바둑 고등부에서 정상을 올랐다.

전남도 대표인 배찬진은 지난 9일 경북 구미시 구미고 대회실에서 열린 고등부 혼성 개인전 결승에서 경기도 대표인 한승규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우승을 차지한 배찬진은 "전국체전이라는 의미 있는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돼 영광스럽다"라며 "최근 치러진 대회들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

데 이번 전국체전 우승이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은메달은 한승규가 차지했고 동메달은 박가영(충북), 박정우(경남)가 각각 목에 걸었다.

올해 전국체전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일반부 경기는 제외하고 고등부 혼성 개인전 경기만 개최됐다.

바둑 고등부에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대표선수 1명씩 참가했다. /연합뉴스

우즈, 아들 출전 대회에 목발 없이 등장

사고 후 7개월...복귀 시점 관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가 아들이 출전한 주니어 골프 대회장에 목발을 짚지 않고 등장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채널은 10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주니어 골프 대회장에서 우즈의 모습이 포착됐다"며 한 트위터 사진을 소개했다.

우즈는 이 사진에서 목발은 짚지 않고 있었으며 편안한 자세로 오른손에 흰 골프 클럽을 땅에 댄 채 몸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즈는 올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

는 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후 4월에 우즈가 공개한 사진에는 목발을 짚은 채 오른쪽 다리는 깁스와 보호대로 중무장했었다.

또 5월 사진에도 우즈는 여전히 목발에 의지했으나 오른쪽 다리의 보호대가 한결 가벼워진 모습이었다.

이번 사진에도 오른쪽 다리에는 반바지 아래쪽으로 맨살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서 있는 자세가 예전에 비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골프채널 역시 "우즈가 언제 다시 대회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복귀를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우즈의 최근 모습을 전한 트위터 게시물

'와일드카드' 원성진 농심배 개막전 출전

'와일드카드'로 농심배 대표팀에 합류한 원성진 9단이 개막전 주자로 낙점됐다.

한국·중국·일본의 바둑 단체 대항전인 제23회 농심신라배 세계바둑최강전은 11일 한국과 일본의 대결로 막을 올린다.

지난 8일 서울 한국기원 회의실에서 열린 농심배 대진 추첨식 결과 개막전은 한일전으로 열리게 됐다.

한국과 일본은 첫 대국에 출전할 기사로 각각 원성진과 시바노 도라마루 9단을 발표했다.

원성진과 시바노의 맞대결 승자는 12일 2국에서 중국 리웨이칭 9단과 맞붙는다.

와일드카드를 받아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원성진은 농심배 본선에서 5승 5패의 전적을 남겼다.

원성진은 "만행으로 한국을 대표해 출전하는 만

큼 책임감을 느끼고 우승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원성진이 시바노와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바노를 꺾으면 만나게 되는 리웨이칭과도 대국 기록이 없다.

코로나19 문제로 이번 농심배는 개막식을 취소했고, 대국 순서도 대리 추첨으로 진행했다. 대국은 온라인으로 열린다.

1라운드 1~4국은 오는 11~14일 열리고, 다음달 26일부터는 2라운드 5~9국이 열린다. 우승국이 결정되는 3라운드는 내년 2월 1일 시작한다.

농심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고, 본선에서 3연승 한 기사는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연승 상금 1천만원씩 받는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1분 1회씩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007 노 타임 투 데이
2관	국정판 판구는 뭇말라 겨울 낙서왕국과 열두 네 명의 용사들
3관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4관	부니베어: 애들이 줄었어요
5관	기적
6관	007 노 타임 투 데이
7관	보이스
8관	007 노 타임 투 데이
9관	용과 주근개 공주
매직 스킵	초보마법사 아우라의 대모험
7관 씨네카툰	국정판 판구는 뭇말라 겨울 낙서왕국과 열두 네 명의 용사들
8관 씨네카툰	상자와 텐 링즈의 전설
9관 씨네카툰	스틸워터, 캔디맨
7관 씨네카툰	보이스, 수색자
8관 씨네카툰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2021.10.27(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GAC 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